

대한민국 친환경 유기농 No.1 브랜드 초록마을



소비자에게 안전한 선택, 농업인에겐 판매 활로 제공

초록마을은 2002년 마포 1호점을 시작으로 2004년 100호점, 2005년 200호점을 오픈하고, 2017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통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성장을 이룩해 온 초록마을은 친환경 유기농 No.1 브랜드로서 고객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잔류농약검사'를 비롯해 '방사능검사', '미생물검사', '중금속검사' 등 수준 높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식품안전기준인 '초록개런티'를 도입,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초록마을은 소비자에게 자연친화적으로 키워내고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먹거리를 제안하고, 친환경 농업인에게는 '판매활로'를 제공'하여 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생활용품으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제안

대한민국 친환경 유기농 No.1 브랜드 초록마을의 역사는 대한민국 유기농 산업의 역사이다. 국내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의 증가는 우리 땅에서 농약과 화학비료가 사라져 점차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록마을은 우리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각종 유해 요인(농약, 화학비료, 화학첨가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계하고 좀 더 안전하고 신선한 상품을 직접 고객에게 손쉽게 제공하기 위해 고심하여 연구한다. 초록마을은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와 안전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우리 가족과 환경을 위한 건강한 식탁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약 400개 매장과 온라인(www.choroc.com)에서 친환경 유기농 식품과 생활용품 등 총 1,500여 가지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초록마을은 국내 친환경 유기농 식품의 유통을 돕고, 소비자에게 우리 농촌의 땀과 정성이 담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1999년 설립되었다. 우리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각종 유해요인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계하고 좀 더 안전하고 신선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록마을은 'CHOROC MEANS ORGANIC'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건강한 내일을 향해 계속 정진할 계획이다.



(주)초록마을 대표이사 김재연

초록마을이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식품전문점 부문 1위에 12회 선정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친환경 유기농 No.1 기업이 되고자 지난 20여 년간 한결같이 걸어 왔습니다. 이런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어느 업체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객 사랑에 자만하지 않고 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전해주기 위해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